

# 금산사 미륵십선운동 펼친다

## ‘미륵십선회’ 전국조직 내년초파일 발대...“국민 도덕성 회복하자”

### 개산 1400주년 행사

‘도둑질하지 말자’ ‘거짓말하지 말자’ ‘탐내지 말자’ 등 생활속에서 불자들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10가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자는 미륵십선운동이 전국적으로 펼쳐질 전망이다. 미륵십선운동을 주도적으로 펼쳐갈 ‘미륵십선회(지도법사 관행·금산사 교무국장)’가 새천년을 앞둔 10월 28일 개산 1400주년 기념법회를 열고 있는 미륵도량 김제 금산사(주지 도영)에서 준비 모임을 가졌다.

‘미륵십선(十善)’이란 (미륵상생경)에 나오는 것으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열가지 착한 행위이다. 부처님께서 태어났을 때 아홉 가지 미륵의 제자가 되려면 오계와 팔재계, 구족계를 지키며 열가지 선을 실천해야 된다고 생황에서 실천해야 할 열가지 선업을 강조했다.

미륵십선회는 물질문명이 엄청나게 발달하고 고도의 정보화로 급변하는 21세기에 인간의 소의감과 갈등, 반목은 한층 심해지고 갈수록 물질만능주의가 되어가는 이 사회의 혼란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길은 ‘미륵십선’의 확산이라는 확신 아래 전국민적 사회

- ### 미륵십선
1. 살생하지 말것
  2. 도둑질하지 말것
  3. 간음하지 말것
  4. 거짓말하지 말것
  5. 이간하지 말것
  6. 욕설하지 말것
  7. 실없는 말하지 말것
  8. 욕심내지 말것
  9. 성내지 말것
  10. 그릇된 견해에 빠지지 말것

도덕성 회복운동에 나선 것이다. 미륵십선회는 금산사에 본부를 두고 내년 5월까지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춘 후 초파일경 금산사 미륵전에서 성대한 발대식을 갖기로 했다. 지역조직 결성에는 지난 여름 금산사 미륵십선추진회에 참가했던 불자 2백여명이 주축이 된다.

특히 미륵본찰인 금산사가 중흥심이 되어 말법시대 후세무민 세력들이 날로 번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올바른 미륵사상의 정립과 홍보에도 심혈을 기울인다.

금산사 주지 도영스님은 발대식에서 “올바른 미륵사상의 공표를



◇미륵성지 금산사는 10월28일 5천여 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개산 1400주년 기념법회를 열고 미륵십선회를 조직키로 했다.

통해 세간에 잘못 유포되고 있는 미륵신앙의 본질을 바로세우겠다”며 “미륵십선운동을 널리 퍼가치 관의 혼란을 바로잡고, 혼탁한 문화를 정화하여 희망찬 민족의 미래가 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산사는 28일 개산 1400주년 기념행사로 역대조사 현공다례와 임진·정유재란시 산화한 승병과 의병을 위한 수륙재, 원성스님 시회전, 범우스님 축하공연, 진동사참음식 시연회, 산사음악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오후 6시부터는 10만동불사 회향식 및 관등으로 도량전체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탄성(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이두(청주 관음사 회주) 월주(금산사 회주) 혜공(법주사 주지) 월서(조계종 호계원장) 정련(조계종 포교원장) 보선(대흥사 주지) 종결(화엄사 주지) 상덕(동화사 주지)스님과 지하, 정년, 지광, 원행, 지명(조계종 중앙총회위원장)스님 백장기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사부대중 5천여명이 참석했다.

김제=김원우 기자 (www.kim@buddhapia.com)

## ■ 저축의날 국민포장 받은 정호진보살 아껴쓰며 30년 보시행 ‘귀감’

조계사 신도인 정호진 보살(67)은 10월 26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36회 저축의날에 저축유공자로 선정돼 국민포장을 받았다. 주위 사람들은 정보살이 30년간 불우이웃돕기를 해 왔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을 정도로 정보살은 숨어서 보시행을 실천해 왔기 때문이다.



“서른 다섯에 남편과 사별하고는 동네 골목가게에서부터 팔장사, 연탄장사 등으로 살림을 꾸려나갔습니다. 돈이 조금 모아지자 의류점사에 뛰어들었고, 강남 일대에 땅을 조금 살 수 있을 만큼의 여유를 가지게 됐지요. 일년 중 추석 이틀만 쉬고는 하루도 빠짐없이 여척스레 일했어요.”

정보살은 어렵게 모은 돈이 있지만 불우한 이웃을 위해 쓰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30대 중반을 넘어서부터 전국 각지의 암자를 순례했다. 신심 쌓는 일도 중요했지만 살림이 궁핍한 암자를 찾아 보시를 하기 위한 것. 또 정릉 경국사에 다녔던 중 알게 된 두 스님의 6년간 유학 학비를 지원했고 소적새마을과 인연을 맺어 12년 동안 부처님 오신날과 추석 때

는 보시금과 후원물품을 준비해 단 한번도 빠지지 않고 방문해왔다. 8년째 광동중고에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5년간 전국 각지의 군법당을 위문, 보시해왔다. 96년에는 TV에서 우연히 본 전북 여수의 소년소녀가장 두 형제가 안스러워 지금까지 학비를 보내주고 있다. 정보살의 신심은 대단해 길 가다가 우연히 스님이라도 마주치면 “책이라도 사보시라”며 가진 돈을 모두 보시하는 일이다 단반사다.

“부처님 가르침에 따른 것뿐입니다. 보시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제 일이라고 여기고 있어요. 뜻먹고 못먹는 아이들을 보면 눈물이 나서 지나칠 수가 없어요...” 한명우 기자

## 뉴스 & 뉴스

### 태국서 청년지도자 세미나

세계불교도우의청년회(WFBY, 한국본부 회장 이치환)는 1~7일 태국 방콕에서 제1차 불교청년지도자세미나를 개최한다. 21세기를 맞으며 불교청년들을 이끌어 나갈 지도자로서의 품성과 자질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세미나는 1일 참가자 등록과 환영만찬, 2일 아유타야 지역 사원 방문 및 태국불교청년회 본부 방문, 3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본격 개막돼 5일 회향식까지 사흘동안 집중된다. 이어 각국 대표들은 6일 WFB와 WFBY 본부를 방문하고 7일 국제담마카야홀에서 진행되는 카티나(태국 전통불교의식) 의식에 참여할 예정이다. 김재경 기자

### 종립학교에 장학금 전달

조계종 서울·경기지역 포교사단(상임운영위원장 김기봉)은 27일 포교원회의실에서 운영위원회 4차 회의를 개최하고 20~21일 대전에서 전국운영위원회(탑장회의) 회의를 열고 포교사단 정관 제정안과 중앙운영위원회 및 임원 구성, 포교사단 출범식 준비비 구상 등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포교사단은 또 오는 15일부터 11개 종립 중학교의 추천(마감 6일)을 받은 불우 청소년 11명에게 4/4분기 장학금(생활보조금) 각 15만원씩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김재경 기자

### 수계 및 순국선열 추모법회

하동칠봉계맥을 이은 제9대 목담을 사에게 계를 전수받은 범홍스님(원효종 종정)이 8~10일 부산 금수사에서 제1회 수계(설계) 및 순국선열 55위 추모대법회를 봉행한다. 갈마아사리에 석주스님(철보사 조실) 경계아사리에 덕암스님(태고종 종정) 전계아사리에 범홍스님(원효종 종정) 교수아사리에 도월스님(유화사 주지)이 전계사로 봉행되는 이번 의식의 설계내용은 비구·비구니계, 사미·사미니계, 식차마니계, 보살계 등이다. (051)467-3316 이경숙 기자

### 도림사 나한상 절도범 체포

전남 곡성경찰서는 22일 사찰에서 나한상을 훔친 특수절도 혐의로 장모(60·광주 북구 문흥동)와 이모(41·광주 북구 문흥동)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 등은 21일 낮 곡성 도림사 응진당에 있던 목조 나한상(비지정문화재) 1점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오종욱 기자

### 부산 보현의 집 첫 수련회

노숙자쉼터인 부산 보현의 집은 개소 이후 처음으로 10월 23-24일 수련회를 개최했다. 경주시 산내의 국민청소년수련마을에서 가진 수련회에는 보현의 집에 머물고 있는 36명이 참석, 축구경기, 요가 및 단전호흡, 명상수련 등의 프로그램으로 마음의 안정을 찾았다. 천미희 기자

## 호국사 촛불명상법회 육사생도 2백명 ‘정좌’

10월 27일 오후 7시 육군사관학교 호국사 법당에는 2백여명의 사관생도들이 정좌한채 촛불의 선율에 마음을 맡기고, 밖으로만 향했던 자신의 마음을 안으로 돌리는 명상체험을 했다. '99회향제 축제의 종교행사 일환으로 열린 이색적인 촛불명상법회에서 마음 닦는 수련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날 법회는 육군 28사단 군법당을 지원하는 포교사단이 특별지원해 김정숙(한마을선원 신도)씨와 동생 김필숙씨(헬리스트)가 관세음의 노래, 상불사의 밤 등 찬불가와 클래식곡을 연주하고 시낭송을 하는 등 독특한 방식으로 진행했다.

육사법당 장성과 지도법사는 “생도들의 법회참여를 높이고,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포교프로그램을 고민하던 중 자신을 돌아볼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주기 위해 촛불명상의 법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법회에 참석한 주홍철생도(2학년)는 “불교에 대해 색다른 느낌을 갖게 한 법회였다”면서 “법문위주의 딱딱한 법회가 아닌 다양한 방식의 법회들이 자주 열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은자 기자

## “군검찰 부대출입일지 조작의혹”

### 김태복소장 공판서 변호인단 제기

군검찰이 김태복소장 법당보시금 뇌물적용 재판과 관련 증거를 고의로 조작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27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열린 ‘김태복소장 사건’ 2심 4차 공판에서 김소장의 변호인단은 “김문규(석탑 보시자)씨가 수십여 차례 부대를 방문해 뇌물을 주었다는 것을 입증하려는 의도에서 군검찰이 101여단 부대출입일지의 방문자 이름과 목적 등을 고의로 고친 흔적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또 “김문규 한정호씨 등 민간인 증인들을 군검찰에서 회유·협박했으며, 증인들도 이런 사실을 법정에서 밝혔다”고 강조했다. 변호인

**유마선원 토요일법회**  
불교수행의 정수를 알고 싶으신가요?  
→ 여기 **금강경 공판법**이 있습니다.

- 수행지도: 유마선원장 직면 이제 열 법사 · 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 7시부터
- 교통편: 유마선원 전철 - 3호선 화정역 1번출구 덕양우체국 앞 버스 - 신촌 921(좌), 영등포82(좌), 서울역 907(좌)
- 문 목: 0344-967-9122



## 대둔사에 초의선사 동상

대둔사(주지 보선)와 초의문화재집행위원회는 10월 29일 해남 대둔사내 초의문화관 앞 다전에서 한국차문화의 흥중조 초의선사(1786~1866)의 동상 제막식을 가졌다. 조선대학교 미술대 김인경 교수가 제작한 이 동상은 차(茶)를 앞에 둔 초의스님이 다선상에 든 모습을 표현한 좌상(坐像)으로 앉은 높이가 1m80cm (좌대포함 2m60cm)이다. 초의선사는

16세때 남평 운흥사에서 출가한 후 전국 의 선지식들을 찾아다니며 선과 교에 다 통달했으며 ‘다선일미(茶禪一味)’사상을 통해 끊어져 가던 한국전통 차문화를 부흥시키고 차 마시는 행위를 참선의 경지까지 끌어올린 조선 후기 대승사이다.

이번에 건립된 초의선사 동상은 지난 95년 제4회 초의문화상을 수상하고 일지암 복원에도 앞장선 한국제다 서양원 사장의 차정신 선양 원력으로 이루어졌다. 이경숙 기자 (gslee@buddhapia.com)

## 제28차 전국어린이지도자연수회

# “새 천년 불교는 어린이와 함께!”

### 모시는 글

반갑습니다. 방방곡곡에서 여래의 사자되어 전법에 민명을 다해 정진하고 있는 어린이 지도자 여러분께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새 천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급변하는 사회환경으로부터 교육 및 불교의 전파와 대응은 우리의 화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회는 어린이 포교아날로 불교계의 대인이라는 인식 하에 「새 천년 불교는 어린이와 함께」라는 주제로 제 28차 전국어린이 지도자연수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연수회는 21세기 사회 변화에 따른 교육과 불교의 역할을 근본 과제로 하여 어린이법회 운영의 실제적인 도움이 될 일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무조류 무류 동참하시어 해안을 넓히시고 어린이 포교를 위한 대화와 토론 등으로 이번 연수회가 어린이포교 발전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기원 드립니다.

불기 2543년 10월 맑은 날

### 연수회 안내

- 연 제: 불기 2543년(1999년) 11월 27일(토) 오후 6시~28일(일) 오후 1시
- 어 디 서: 서울 올림픽파크텔(올림픽공원 내)
- 참가대상: 어린이지도자 및 포교에 관심있는 분 모두
- 동 참 금: 5만 5천원 (1박 3식, 기념품, 연수회 자료집, 만들기 재료 일체 준비 - 미리 접수시: 5만 2천원/ 군중병, 도서벽지지도자 3만원)
- 신청방법: 실명인 관개로 송금 후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당일 접수도 가능(당일 송금 영수증 지참)
- 보내실 곳: 우체국 601310-0037877-11 / 예금주: 대불어
- 신청기간: 10월 25일(월)~11월 20일(토)
- 준 비 물: 세면도구, 필기구, 분반수업시-강의 6(가위, 풀, 칼, 붓드)
- 접수·문의: 본회 사무국 ☎ (051)808-4569, 4570 (FAX 808-4571) PC천리안: GO BOSAL(운영자 수신 편지 이용) E-Mail: Youngoc@thrunet.com/ZSBOSAL1@chollian.net

### 주요강의내용

주요 강의 내용	강 사	비 고	
어린이포교에 대한 종단의 정책과 방향	대한불교 조계종포교원		
경전 상에 나타난 어린이 교화	정 병 조	동국대 교수	
이야기가 있는 노래마당(국악강의)	김 정 민	방송연예인, 서울국악예고 강사	
사찰 속 더불어 살을 위한 어린이법회 운영 (어린이법회의 새로운 방향 및 프로그램 제안)	조 경 욱	조계사어린이회 지도교사	
우리가 부르는 찬불가	정 유 탁	종정소리	
분 반 수업	우리가 만드는 세상 (미술활동 / 전통놀이감 만들기)	노 수 산	아동미술전문가, 나무미술학원 원장
	신나는 가락으로 입모아 마음모아 (노래를 이용한 레크리에이션)	최 홍	한국방송기전문화예술원 이벤트 실장
사찰예절과 예법	덕진스님	회장스님	
21세기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청소년 교육과 불교	김 중 서	전 덕성여대 총장 전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주최 **대한불교조계종포교원** 주관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수회**

총재/정관 부총재/혜중, 철오 회장/덕진 상임부회장/정여 부회장/문성, 원혜, 영조, 해관, 무등, 심산, 성형, 인성 감사/지광, 박창식

지역의역서 ■ 서울·경기 (02)433-1506/유지선 사무국장 ■ 부산 (051)853-5486/이신경 총무차장 ■ 대구·경북 016-505-3143/김형중 사무국장 ■ 광주 011-719-5550/성수보 사무국장 ■ 대전 042)433-1141/유재희 사무국장 ■ 경남 (0551)242-0108/천명숙 사무국장 ■ 제주 016-691-4728/김병현 사무국장